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200th Anniversary of the Composition of the 'Choral' Symphony

송년음악회

베토벤 합창교향곡 작곡

200주년 기념 연주



국립합창단,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이영현, 베이스바리톤 유영현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라단조,
작품번호 125 '합창'
Beethoven | Symphony No.9
in d minor, Op. 125 'Choral'

12.27

FRI 7:30PM



합신의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이사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감사

김일규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규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3 - 2024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노루그룹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주)EG

말러 Circle

한영재

(유)세봉

(주)에프에스티

(주)티에스이

브람스 Circle

(주)디에스케이

(주)GFS

(주)골프존

어스빌리지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전동규

(주)다진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주)면사랑

(주)세아제강

(주)제이씨케미칼

(주)풍산

영앤진세무법인

베토벤 Circle

김윤자

최영애

장원기

한태준

홍종관

(주)동효

쇼팽 Circle

안정근

송백규

최승식

(주)KNW

모차르트 Circle

서석호

신영만

양서윤

양세이

원장희

윤석애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엔피코리아

범무법인산경

하이든 Circle

고윤영

권영성

권용관

김성렬

김종혁

김호진

박명우

봉욱

신갑순

윤현숙

이근혁

이미영

이병권

장민경

장윤정

전인평

조백일

최승갑

최인규

한문성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심포니 S.O.N.G(심포니송)’은 지휘자 함신익이 창단한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에서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들과 음악가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 창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단 이후 현재까지 심포니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한 책임이라는 함신익의 신념과 음악을 사랑하는 후원자들의 애정 어린 응원이 이뤄낸 결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 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귀중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 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Symphony No.9 in d minor, Op. 125 'Choral'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라단조, 작품번호 125 '합창'

- I. Allegro ma non troppo, un poco maestoso 적절한 빠르기로 조금 장엄하게
- II. Scherzo : Molto vivace 스케르초 : 매우 생기있게
- III. Adagio molto e cantabile 매우 느리게 노래하듯이
- IV. Finale : Presto 피날레 : 빠르게

함신익 지휘

- 소프라노 오미선
-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 테너 이명현
- 베이스 유명현
- 합창 국립합창단



심포니송의 프로들



예술감독	함신익				피콜로	조이삭			
바이올린	*송지원	박진형	강은실	김민하	오보에	Simon Lee 김소정			
	김양희	김지연	김희영	문수빈	클라리넷	이환희 허진선			
	박지윤	선유란	안지주	오하은	바순	김윤지 어지은			
	유지혜	이지현	이화진	전지은	콘트라바순	심충현			
	정예린	조유리	천나은	최보경	호른	조종현	김효정	주혜준	황재빈
	최송아	홍예슬			트럼펫	이진규 이해진			
비올라	서예슬	김다미	김효경	박지희	트럼본	김성수 김재원 김지섭			
	안예림	윤소은	장윤정	조선유	팀파니	곽선일			
첼로	박주성	김욱	오소연	이은지	타악기	김성은	김슬민	손혁진	
	정다인	정혜슬	최영	홍지희	크리에이티브팀	신현숙	고부현	구현정	김소정
더블베이스	고부현	강선롤	김가은	김태현		유소정	이수민	이창훈	
	윤영진	임희진							
플루트	김단이 조연선								

*악장 ※명단은 악장/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지휘자

함신익

함신익과 심포니송을 지켜본 사람들은 지난 10년을 '孤軍奮鬪(고군분투)'라고 표현한다. 고군분투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의한 일을 잘해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하며 매년 매초를 벽차게 10년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사명 의식이 깃든 지휘자 함신익

함신익의 고군분투는 실상은 예술을 접하는 유니크한 태도와 시선에 닿아 있다.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은 오늘의 함신익을 형성하는 데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이 된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교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

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 지휘자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 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

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세계가 함께 즐기는 새로운 음악의 길 제시

지휘자 함신익은 대전시립교향악단(2001-2006)과 KBS교향악단(2010-2012)의 예술감독, 음악감독으로 한국 오케스트라의 중흥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그의 능력을 증명해 냈다.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UN 본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김멜센터, 스페인 빌바오, 말라가 심포니홀, 시애틀 베나로야홀, 볼티모어 마이어호프홀,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독일 캄니츠 주립극장, 독일 북서 지방의 콘서트홀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브장송 오페라하우스, 아비뇽 오페라하우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리스트홀, 체코 프라하 드보르작 루돌피움, 스메타나홀, 베이징 국립대극장, 상하이 오페라하우스, 도쿄 오페라시티홀, 오사카 심포니홀, 폴란드 바르샤바 심포니 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홀, 태국 방콕 마이돈홀,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극장 등과 그 밖의 많은 도시에서 순회연주를 하였거나 그곳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였다.

최근 행보는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전형적인 열정과 섬세한 지휘가 남미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청두, 항저우, 구이양, 칭다오 등 중국 대도시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다. 최근 2024년 5월 10일, 쓰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쓰촨성 심포니홀 개관 공연을 선보였다. 쓰촨성 음악가협회 명예회장이자 유명 작곡가인 아오창쿤 교수는 "함신익 지휘자가 쓰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지휘하며 장엄한 추진력과 강한 예술적 매력으로 청중을 놀라게 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국립합창단 단장 및 예술감독 민인기

국립합창단은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1973년에 창단된 전문합창단으로 본격적인 합창 예술운동의 선두주자이자 합창음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해왔다. 2000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독립, 재단법인으로 재발족하여 매년 4회의 정기연주

회와 60여 회의 기획공연, 지역공연, 해외공연, 외부출연, 공공행사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불리는 헨델, 바흐, 하이든, 멘델스존, 브람스, 칼 오르프 등 세계적인 작곡가의 합창작품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한 국립합창단은 합창음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한국 창작 합창곡 개발과 보급, 한국적 특성과 정감을 표출하는 창법, 해석법의 정립 등에 앞장서며 한국 합창음악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오미선 소프라노 김선정 메조소프라노 이명현 테너 유명현 베이스바리톤

- 이탈리아 페스카라 음악원 졸업
- 벨리니 국제 콩쿨 입상
- 2015년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여자 주역상 수상
- 현) 성신여자대학교 성악과 교수
- 함부르크 음대 학사 석사
- '카르멘', '보체크', '신데렐라' 등 국내외 오페라에서 주역으로 활동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및 전문 연주가 활동
- 함부르크 음대 졸업
- 독일 노이에슈티멘 콩쿨 1위, 칠레 루이스기갈 콩쿨 1위
- 독일 SWR 방송국 젊은 오페라스타 우승
- 23-24 시즌 독일 메클렌부르크 주립극장, 코트부스 주립극장 주역가수로 출연
-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 오페라 '토스카', '보체크', '돈 조반니', '사랑의 묘약' 등 다수의 오페라 출연
- 2016-2018 독일 킬 주립극장 객원 솔리스트, 2018-2022 독일 에어푸르트 주립극장 전속 솔리스트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9 in d minor, Op.125

루트비히 반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라단조, 작품번호 125

음악을 통하여 운명을 극복하고 보편적 인류애를 노래하자고 주장한 독일의 위대한 음악가 루트비히 반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이 곡은 그의 최후의 교향곡으로 4악장에 삽입된 합창과 4명의 성악가 그룹 때문에 '합창' 교향곡이라 불리기도 한다. 동기의 착상은 그의 교향곡 1번(1800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817년 런던 필하모닉 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의뢰를 받아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하여 그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인 1824년에 완성하였다. 초연은 같은 해 5월 미하엘 움라우프(Michael Umlauf, 1781~1842)의 지휘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행해졌으며 베토벤은 리허설을 직접 이끌고 연주 때는 무대 위에 위치하여 현악주자들의 움직임을 통해 곡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영화 '불멸의 연인'이나 '카핑 베토벤'에서 소개되었듯이 그는 연주가 다 끝난 줄 모르고 계속 연주자 쪽을 보고 있다가 알도 독창자 카롤리네 운어(Caroline Unger)가 청중 쪽으로 그의 몸을 돌려준 후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청력을 잃은 베토벤은 음악가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할 큰 좌절 앞에 놓이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음악을 통하여 주어진 운명을 극복해 나간다. 그는 그의 이러한 삶과 신념,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본주의적(人本主義的) 접근을 통해 인류애와 평화에 대한 해법을 찾아간 프리드리히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독일 고전주의 극작가이자 시인, 철학자, 1759-1805)의 '환희의 송가(Ode to Joy)'를 가사에 담아내었는데, 그것은 이 교향곡 4악장의 성악 가사와 교향곡 전체의 음악적 구조에 담겨있다.

기악곡에 능했던 베토벤이 이 교향곡에 성악(聲樂)을 포함시킨 것은 실러의 "인본주의적" 메시지를 음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종의 클라이맥스이자 화룡점정(畫龍點睛) 격으로 인간의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역사상 처음으로 교향곡에 합창을 수록하게 된다. 사실 그는 그의 1808년 작 "Choral Fantasy"(피아노와 솔로, 합창을 위한 교향적 환상곡)에서도 기악과 성악의 완전한 조화를 시도하였는데 주제의 형태와 관현악법, 악곡 구조가 유사한 점이 많이 보여 9번 교향곡의 전신(前身)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가사 역시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서 차용되었으며 주어진 메시지가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1악장

Allegro ma non troppo, un poco maestoso

호른과 현악기가 5도 간격의 "라"와 "미" 음을 연주하며 긴장감 있게 첫 막을 연다. 이 5도 음정 관계는 사실 "화성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음악 문법의 "주어와 동사"에 해당하며 d minor 조성에서의 이 "라"와 "미" 두 음은 다섯 번째 화성 (Dominant Chord, 라도#미)에서 3도 음을 생략한 것으로 화성 진행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된다. 선율 또한 리듬을 가미한 5도 음정의 반복으로 음정관계, 화성 진행에서의 두 음의 기능, 그리고 모토릭 리듬(motoric rhythm)을 구성하는 음 모두를 통해 주제를 음악의 공리(公理, axiom)로 구성하였다.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9
in d minor, Op.125

The Symphony No. 9 is the final Symphony written by the German great composer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Due to its usage of a choir and four vocalists in the fourth movement, it is also known as a "Choral Symphony". Its motif-work has been set out by the composer himself since his early symphonies back in 1799; the main composition work was started after he was commissioned from the Philharmonic Society of London in 1817. The Symphony was completed in 1824 three years prior to his death. On May in the same year he completed the work, it was premiered by Michael Umlauf (1781-1842) and Beethoven led the rehearsals in Vienna and participated the performance by standing on the stage during the fourth movement. Beethoven who became deaf was confronted the great frustration which would make him to give up musician's life however, ironically it was Music through which he overcame his destiny. He delivers his philosophical belief in this symphony with the text of "Ode to Joy" by the German classic writer, poet, and philosopher 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 who sought for the way to complete brotherhood and ultimate peace through humanistic approach. As it is observed in his last chamber music that he ponders returning to religious approach to salvation, it turns out hard to state that the philosophical message in this symphony is his final view on destiny, salvation and completion of life through music. He has made a perfect harmony



[Figure 3. 1악장 1주제 동기]

마치 어떤 한 세계가 하나의 근원적인 초석 위에 탄생하는 듯 이 설정 위에 장대하게 에너지를 쌓아 가면서 본 주제는 마침내 폭발하듯 등장하는데 이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강력한 리듬을 수반한 1도 코드 하행 아르페지오(arpeggio) 형태이다.



[[Figure 4. 1악장 1주제]]

베토벤 특유의 고집스런 화성적 주장이 반복되면 두 번째 주제는 Bb 조에서 희망적이며 아름답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듯 풀어간다.



대선율 Counterpoint



[Figure 5. 2악장 2주제]

1주제가 하행 도약하던 것과 달리 이 주제는 주선율과 대선율 모두 부드럽게 상행시키며 긴장을 완화하지만 이윽고 폭풍이 거칠게 몰아치듯 숨 가쁜 달음박질을 통해 발전부로 들어간다. 발전부는 첫 부분과 동일하게 시작되는데 두 주제의 파편들이 뒤엉켜 있는 것이 재미있다. 총총걸음으로 느닷없이 발걸음을 멈추어서기도 하지만 점차 힘을 모아 재현부로 들어가는데 주제가 D major 형태로 나타나며 팀파니의 강력하고 긴 트레몰로(tremolo)가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게 한다. 코다는 마치 화자의 삶 속에 검게 다가오는 괴물 같은 운명의 모습을 묘사하는 듯 음침하게 시작되고 첫 주제가 유니슨으로 힘차게 반복되어 끝맺는다.

between instrumental music and vocal music in his "Choral Fantasy" (Fantasy for piano, vocal soloists, chorus, and orchestra, 1808). Its thematic pattern, shape, orchestration and musical structure are similar to this Symphony so the Choral fantasy is considered as a predecessor of the Symphony No. 9

1st Movement

Allegro ma non troppo, un poco maestoso

The horns and inner-voice strings open the stage curtain and create mysterious mood by playing "A" and "E" which are in 5th interval relation. This fifth interval is actually the very fundamental of harmony system in western music, being of musical "subject" and "verb". Moreover those two notes also belong to fifth chord of d minor key so it adds up to double-emphasizing the essence of music. The melodic line is a repetition of the 5th with rhythmic movement as well.

As if a certain world is being created out of its basis, musical energy builds up until the theme explodes to exist: the theme is in Tonic chord arpeggio supported by a strong rhythmic gesture. Typical Beethovenian obsession of harmonic statements is being reiterated and the second theme in Bb major narrates its hopeful story beautifully. Contrast to the first theme jumping downward, this theme and its counter melody both all smoothly ascend so the tension made before is relieved temporarily. Like a harsh storm, it irresistibly and roughly advances into th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begins similarly to the exposition. It is interesting to see the particles of the two themes being interlocked and developed. Quick short steps slow down the music at times however; it gathers all the power and goes into the recapitulation where the first theme appears in D major by the tutti orchestra. Its big sound along with the

2악장

Scherzo: Molto vivace

1악장이 화자의 운명 또는 우주의 시작에 관한 묘사였다면 2악장은 운명에 순응하지 않는 저항의 치열한 몸부림같이 보인다. 느린 템포의 2악장 전통을 따르지 않고 폭풍우 같이 휘몰아치던 전 악장에 이어 빠른 스케르초 형식을 택하였는데, 주제는 1악장 첫 주제의 변주이고 조성은 계속 d minor에 머물러 있다.



Dactyl 기본 모티브
Dactyl rhythmic motif

[Figure 6. 2악장 주제]

‘Dactyl’ 리듬(시에서 쓰이는 운율의 형태로 긴 음절 뒤 짧고 약한 두 음절이 뒤따른다.)의 고집스런 사용은 그의 7번 교향곡에서의 그 사용과는 대조적으로 즐거운 몸짓이 아닌 철저한 지적(知的) 논쟁 같아 보인다. 목관에 의한 두 번째 주제는 1악장에서와 같이 다소 희망적이지만 현파트에서 들리는 고집스런 Dactyl 리듬은 역동적인 즐거움과는 대조적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한다.



[Figure 7. 2악장 2 주제]

오케스트라와 팀파니 솔로가 주고받는 리듬의 향연 뒤에 중반부는 4/4박자 위에 레가토로 나오면서 처음으로 유연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맞이한다. 주제는 마치 4악장 주제의 복사처럼 형태가 많이 닮아 있는데 오케스트라 전체가 편안한 가운데 우렁차게 노래하고 조용히 끝내는가 싶으면 첫 부분이 짹 짹 놀라듯 서둘러 등장한다. 곡의 마지막에 와서는 곡의 중반부가 반복되는 듯싶더니 급하게 첫 주제로 곡을 마무리 짓는다.

3악장

Adagio molto e cantabile

변주곡 형태의 느린 악장으로 두 개의 주제를 사용하여 서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매우 철학적이고 지적인 앞선 두 악장과는 대조적으로 인간 본연의 감성 또는 종교적 귀의(歸依)를 표현하는 듯 아름답고 고상하다. 앞선 주제들의 강압적이고 권위적 포효와는 달리 음 하나하나 구구절절이 세밀하게 풀어나가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애절한 느낌을 준다. 초월적 사랑을 노래하듯, 기도하는 듯 선율은 시간의 흐름에 얽매어 있지 않고 자유롭다.

timpani’s roll makes our heart to pound strongly. In coda, as if it describes a black monster from his life destiny coming into sight, the atmosphere is very gloomy. A strong unison of the first theme ends the movement.

2nd Movement

Scherzo:
Molto vivace – Presto

If we say the first movement was the description about his life destiny or the beginning of the universe, this movement was fierce struggling to resist the destiny to not obey its violence. Rather than the traditional setting of slow second movement, he takes fast Scherzo form after the violent storm in the first movement. The theme is a variation of the first theme of the previous movement and still is in d minor.

Contrast to his obsessed usage of ‘Dactyl’ rhythm in his 7th Symphony for the purpose to express pleasant state, this obsession here concludes to become a serious intellectual debate. The second theme by the winds sounds hopeful like the one in the first movement however, repeating Dactyl rhythm in the strings keeps us from pleasant force but holds in tension. After rhythmic dialogue between the Timpani and the orchestra comes a linear melody in legato in 4/4 time, that creates relaxed and comfortable atmosphere. The theme resembles the theme of the last movement like a foreshadowing. The tutti orchestra peacefully plays it. But the first part surprising comes into view again. In the end of the movement, the middle part shortly appears and the first theme hesitantly finishes the movement.

3rd Movement

Adagio molto e cantabile –
Andante moderato –
Tempo primo –
Andante moderato –
Adagio – Lo stesso tempo

This is a slow movement in variation format, using two themes. Its orchestration and the musical ideas are very lyrical. Contrast to those two philosophical and intellectual movements before, the very nature of human emotion and religious devotion are expressed beautifully and nobly in this movement. Not like those authoritative and forceful preceding themes, the subtle details of every sing notes and its meaning are focused delicately. As if it talks about transcendental love, the melody is beyond the sense of time. Two significant fanfares cause two different consequences. The former one leads to frustration and sadness but the latter brings about hope to new world as if it is an another foreshadowing of the last movement. The main theme repeats and the movement ends softly.

4th Movement

Recitative – Presto – Allegro
ma non troppo – Vivace –
Adagio cantabile – Allegro assai
– Presto – Allegro molto assai
– Alla marcia – Allegro assai
vivace – Andante maestoso
– Adagio ma non troppo, ma
divoto – Allegro energico,
sempre ben marcato – Allegro
ma non tanto – Prestissimo,
Maestoso, Molto prestissimo



두번째 팡파르
the Second Fanfare

[Figure 8. 3악장 Fanfare 주제]

두 차례의 팡파르는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데, 처음의 것은 좌절과 슬픔으로의 체념으로 이어지지만 두 번째 것은 4악장에서의 새로운 세상과 희망에 대한 복선(伏線)이다. 주제가 마지막으로 반복되고 차분히 끝을 맺는다.

4악장

Finale

“Nein! 아니야 이 모든 것이 아니야!” 라며 앞선 세 악장의 주장을 마치 부정이라도 하는 듯, 힘찬 불협화성에 이은 빠른 스타카토 음형이 관에 의해 정신없이 나타난다. 첼로와 베이스는 악기를 통한 Recitativo(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형식)로 우리에게 무언가 삶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 보이는데 이는 나중에 노래 가사가 가미되면서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앞선 세 악장의 주제들이 잠깐씩 회상되지만 매번 부정되고 Recitativo가 뒤따른다. 마침내 등장하는 주제는 베토벤이 십 수 년간 스케치와 수정을 반복하여 심혈을 기울여 창작해 낸 것으로 저음 현에서 조용히 시작되어 악기 군이 서서히 참가하여 마침내 전체 오케스트라가 힘차게 노래한다.



[Figure 9. 4악장 본 주제]

다시 한 번 불협화성에 이은 빠른 스타카토 음형이 등장하고 이윽고 인성(人聲)에 의해 인류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가 퍼져나간다. 음악으로 형제애(兄弟愛)를 이루자는 메시지는 4명의 독창자와 합창이 번갈아가며 강렬하게 반복된다. 오페라서 행진곡 풍의 타악기가 사용되기도 하고 Recitativo 형태의 음형이 트럼본과 테너, 베이스에 의해 전개되기도 하는 등 변주곡의 형태를 보이다가 코다에 이르면 이 모든 여정이 하나의 축제의 경쾌함으로 응집되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4악장 가사]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 Tochter aus Elysium,
환희여, 신의 아름다운 광채여 낙원의 딸들이여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우리는 빛이 가득한 곳으로 들어간다 성스러운 신전으로!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가혹한 현실이 갈라놓은 자들을 신비로운 그대의 힘으로 다시 결합시킨다.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그대의 고요한 날개가 머무르는 곳에.

Wem der große Wurf gelungen Eines Freundes Freund zu sein;
위대한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여, 진실된 우정을 얻은 자여,

Wer ein holdes Weib errungen Mische seinen Jubel ein!
여성의 따뜻한 사랑을 얻은 자여, 다 함께 모여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Ja, wer auch nur eine Seele Sein nennt auf dem Erdenrund!
그렇다. 하나의 마음일지라도 땅 위에 그를 가진 이는 모두 다!

Und wer's nie gekonnt, der stehle Weinend sich aus diesem Bund!
그러나 그조차 가지지 못한 자 눈물 흘리면서 조용히 떠나라!

Freude trinken alle Wesen. An den Brüsten der Natur;
이 세상 모든 존재는 환희를 마시라 자연의 품 속에서

Alle Guten, alle Bösen folgen ihrer Rosenspur.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환희의 장미 핀 오솔길로 나아간다.

Küsse gab sie uns und Reben, Einen Freund, geprüft im Tod;
환희는 입맞춤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죽음조차 빼앗아 갈 수 없는 친구를 주고

Wollust ward dem Wurm gegeben und der Cherub steht vor Gott.
땅을 기는 벌레조차도 환희를 맛보고 천사 케루빔은 신 앞에 선다.

Froh, wie seine Sonnen fliegen. Durch des Himmels prächt'gen Plan
태양이 수많은 별 위를 움직이듯이 광활한 하늘의 궤도를 즐겁게 날듯이

Laufet, Brüder, eure Bahn, Freudig, wie ein Held zum siegen.
형제여 길을 달려라, 영웅이 승리의 길을 달리듯이.

Seid umschlungen, Millionen! Diesen Kuß der ganzen Welt!
모든 사람은 서로 포옹하라! 온 세상 위한 입맞춤을!

Brüder, über'm Sternenzelt muß ein lieber Vater wohnen.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으니.

Ihr stürzt nieder, Millionen? Ahnest du den Schöpfer, Welt?
억만 인들이여, 엎드리지 않겠는가? 창조주를 믿겠는가, 온 세상이여?

Such' ihn über'm Sternenzelt! Über Sternen muß er wohnen.
별들 뒤의 그를 찾으라! 별들이 지는 곳에 그는 있다.

"Nein! No! These all things are wrong!"

As if the statements from the previous movements are all denied, a strong dissonant chord with the following rapid staccato gestures from the winds appears frantically. Cellos and Contrabasses deliver a certain philosophical statements through an instrumental Recitative (adoption of the rhythm and intervals of ordinary speech): its meaning becomes very clear later when the word is added. Themes from those three preceding movements are recalled but immediately declined and followed Recitativo. Finally the main theme appears in the low string instruments. It starts softly and builds up by adding instruments so that it becomes powerful tutti orchestra. It is said that Beethoven has been pondering and revising the sketch of this motif for decades until the theme became perfect as of the following.

The dissonant chord appears again with those rapid staccato gestures. Then the human voice conveys Schiller's message of the peace on human being through music. Humanistic solution to achieve brotherhood through music is robustly shouted by the four vocalists and the choir. Theme comes in the form of operatic march with percussion. And it also appears in the form of Recitative by the trombone and Tenor, Bass from the choir. This variation of the theme develops until it reaches to its climax. Along with the message of the brotherhood through music, a statement of humanistic salvation beyond the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evil is vigorously stated again. The symphony ends with exciting feelings in a festive tempo.

O Freunde, nicht diese Töne! Sondern laßt uns angenehmere
anstimmen, und freudenvollere.

Oh friends, not these sounds! Let us instead strike up more pleasing and
more joyful ones!

Freude! Freude!

Joy! Joy!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 Tochter aus Elysium,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Joy, beautiful spark of divinity, Daughter from Elysium, We enter,
burning with fervour, heavenly being, your sanctuary! Your magic
brings together what custom has sternly divided. All men shall become
brothers, wherever your gentle wings hover.

Wem der große Wurf gelungen, Eines Freundes Freund zu sein; Wer
ein holdes Weib errungen, Mische seinen Jubel ein! Ja, wer auch nur
eine Seele Sein nennt auf dem Erdenrund! Und wer's nie gekonnt, der
stehle Weinend sich aus diesem Bund!

Whoever has been lucky enough to become a friend to a friend, Whoever
has found a beloved wife, let him join our songs of praise! Yes, and anyone
who can call one soul his own on this earth! Any who cannot, let them
slink away from this gathering in tears!

Freude trinken alle Wesen An den Brüsten der Natur; Alle Guten, alle
Bösen Folgen ihrer Rosenspur. Küsse gab sie uns und Reben, Einen
Freund, geprüft im Tod; Wollust ward dem Wurm gegeben, Und der
Cherub steht vor Gott.

Every creature drinks in joy at nature's breast; Good and Evil alike follow
her trail of roses. She gives us kisses and wine, a true friend, even in
death; Even the worm was given desire, and the cherub stands before God.

Froh, wie seine Sonnen fliegen Durch des Himmels prächt'gen
Plan, Laufet, Brüder, eure Bahn, Freudig, wie ein Held zum Siegen.

Gladly, just as His suns hurtle through the glorious universe, So you,
brothers, should run your course, joyfully, like a conquering hero.

Seid umschlungen, Millionen! Diesen Kuß der ganzen Welt! Brüder,
über'm Sternenzelt Muß ein lieber Vater wohnen. Ihr stürzt
nieder, Millionen? Ahnest du den Schöpfer, Welt? Such' ihn über'm
Sternenzelt! Über Sternen muß er wohnen.

Be embraced, you millions! This kiss is for the whole world! Brothers,
above the canopy of stars must dwell a loving father. Do you bow down
before Him, you millions? Do you sense your Creator, O world? Seek Him
above the canopy of stars! He must dwell beyond the stars.

Ludwig van Beethoven
Prometheus Overture, Op. 43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작품번호 43

Antonín Dvořák
Cello Concerto, Op. 104, b minor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번호 104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5, Op. 67, c minor

베토벤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번호 67

New Year Concert

지휘
함신익

신년
음악회

첼로
김민지

01. 10 Fri

7:30 PM

LOTTE
CONCERT HALL

티켓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후원 하나은행 NOROO PDONGSAN WEVTSE FST SEBONG GOLFZON DSK 화광교역(주)

SYMPHONY
SONG
SHINIK HAHM



Mozart Flute Concertos

Busoni
Berceuse élégiaque, Op. 42

Mozart
Flute Concerto No. 1,
K. 313, G Major
조성현, flute

Mozart
Flute Concerto No. 2,
K. 314, D Major
조성현, flute

Schubert
Symphony No. 6,
'The Little', C Major

신년음악회

Beethoven
Prometheus Overture, Op. 43

Dvořák
Cello Concerto,
op. 104, b minor
김민지, cello

Beethoven
Symphony No. 5,
op. 67, c minor



Mahler 9

Mahler
Symphony No. 9, D Major



Welcoming Spring

Cindy Cox
Dreaming
a World's Edge (2022)
아시아 초연

Elgar
Cello Concerto, op. 85,
e minor
Jiapeng Nie, cello

Schumann
Symphony No. 1 'Spring'
op. 38, B Flat Major

2025 함신익과 심포니 송 MASTERS SERIES

영웅들을 추모하며

Mozart
Symphony No. 40,
K. 550, g minor
Mozart
Requiem, K. 626, d minor

김순영, 김선정, 이명현,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Sibelius Special

Strauss Jr.
Fledermaus Overture

Sibelius
Violin Concerto, op. 47,
d minor
송지원, violin

Sibelius
Symphony No. 5, op. 82,
E Flat Major



Sir Stephen Hough Plays Grieg and Stephen Hough

스티븐 허프가 초연하는
스티븐 허프 피아노협주곡

Sir Stephen Hough
AGATA a Basque Fantasy
for Orchestra

Grieg
Piano Concerto, op. 16,
a minor

Sir Stephen Hough
Piano Concerto
한국 초연



Beethoven & Bruckner

Beethoven
Piano Concerto No. 3,
op. 37, c minor
김규연, piano

Bruckner
Symphony No. 1, c minor



Remembrance Ravel and Shostakovich

Mozart
Piano Concerto No. 21,
K. 467, C Major
유영욱, piano

Ravel
Le Tombeau de Couperin

Shostakovich
Piano Concerto No. 1,
op. 35, c minor
유영욱, piano

Ginastera
Variaciones Concertantes



12. 18 Thu

SYMPHONY
SONG
SHINIK HAHM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시즌패스
Season Pass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보석같은
2025 시즌패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Last
Chance

조기구매할인혜택

※ VIP석은 100석 한정

12월 31일까지 구매시	VIP석 10회	1,200,000원 → 960,000원
	R석 10회	1,000,000원 → 800,000원
	S석 10회	700,000원 → 560,000원
	A석 10회	500,000원 → 400,000원
학생 특별 지원 할인 100석 한정 (학생 인증 필수)	A석 10회	500,000원 → 200,000원
	B석 10회	300,000원 → 100,000원

티켓 구매 요령



전화 구매
02-549-0046



e-mail
management
@symphonysong.com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송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input type="checkbox"/> R석 <input type="checkbox"/> S석 <input type="checkbox"/> A석	<input type="checkbox"/> 현장수령(추천) 수령 방식 <input type="checkbox"/>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심포니 S.O.N.G 법인 / 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예우
마에스트로	3억원 이상	기업연주* 6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원 이상	기업연주* 2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익 기업방문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광고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말러	5000만원 이상	기업연주* 1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2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브루크너	2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슈베르트	1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 하이든은 제외
베토벤	5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원 이상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Upcoming Concerts

01.10

2025 마스터즈 시리즈 I '신년음악회'

롯데콘서트홀 — 오후 7시 30분
티켓 절찬 판매 중

01.18

서대문구 초청 신년음악회

연세대학교 대강당 — 오후 5시
무료 입장

02.22

2025 마스터즈 시리즈 II '두 개의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오후 5시
티켓 절찬 판매 중



2025 법인 후원약정서

신 청 인	성 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주 소	_____					
	Mobile	_____					
	E-mail	_____					
약 정 금 액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30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_____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보	은행명	_____	예금주명	_____			
	계좌번호	_____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개인

또는

법인

약정금액 _____

성 명 _____

연 락 처 _____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신감,
삶에 대한
자신감

성형 MOLDING

피부 SKIN

메디스파 MEDISPA

비만 OBESITY

두피 SCALP

항노화 ANTI-AGING

지방성형 A FATTY MOLDING

성의학클리닉 A SEX CLINIC

세포재생전문클리닉 CELL REGENERATION CLINIC

L
A
H
Y
E
O
N

Tel. 02.3445.1155 Fax. 02-3446-6885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도산대로 420) 청담스퀘어 5층

... FA & BIO분야 ...

글로벌 종합 기술기업

이차전지장비, 디스플레이장비, 리니어시스템, 물류자동화 로봇,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
대한민국 장비산업분야 및 바이오 보툴리눔독소제제 미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LFZON NEWDIN GROUP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서

언더프레서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MARKET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서를 검색하세요.



OFFLINE SHOP



<언더프레서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www.underpressure.co.kr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S3 : eBMS
간행물 e북화 통합관리 솔루션

S3 : HTML Converter
첨부파일 바로보기 솔루션